

인수공통감염병

- ▶ 인수공통감염병(人獸共通感染病)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
- 큐열: 큐열균(*Coxiella burnetii*)에 의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감염병
- 브루셀라증: 브루셀라균(*Brucella spp.*)에 의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감염병
- * 큐열·브루셀라증: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분류

큐열·브루셀라증 감염경로

- ▶ 직접접촉: 감염된 기축의 대·소변, 출산 부산물 (양수 및 태반 등), 유즙, 혈액 등이 피부 상처나 결막 등에 직접 노출
- ▶ 흡입전파: 병원체에 오염된 먼지의 흡입
- ▶ 식품섭취: 살균처리 되지 않은 우유 및 유제품, 덜 익힌 육류 섭취
- ▶ 기타경로: 성 접촉, 수혈, 골수이식 등에 의한 병원체 전파

큐열·브루셀라증 진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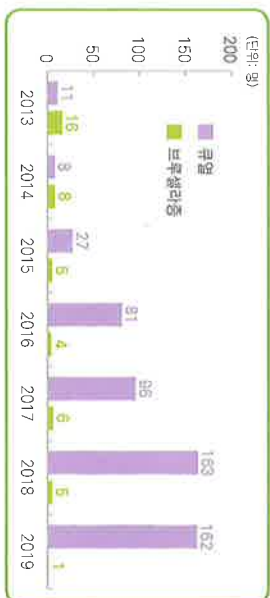
- ▶ **혈청학적 진단:** 금성기와 회복기 혈청 모두 필요
- * 증상발생 후 7~15일이 지나고 검사를 시행하여 항체 보유 여부 확인

큐열·브루셀라증 치료

- ▶ 일반적으로 금성큐열은 2주간, 브루셀라증은 6주간 항생제 치료 실시
- * 큐열 무증상자 및 증상이 호전된 경우 반드시 치료를 권장 하지는 않음

큐열·브루셀라증

사람 발생 현황(2013~2019)



큐열 증상

- ▶ 무증상: 감염자의 약 60%
 - ▶ 금성증상: 노출 후 2~3주 내에 갑자기 유사증상
 - ▶ 만성증상: 증상 후 6개월 이상 지속되며, 심내막염, 중추신경계 합병증 발생 가능
- 우리나라 금성 큐열 역학조사 결과, 발열(89%), 오한(56%), 두통(33%), 피로(27%), 근육통 및 식욕부진(각 25%) 등으로 많았으며, 이외 폐렴, 간염, 관절통, 체중감소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남

큐열 혈청유병률 조사 결과

- ▶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종사자 대상 혈청유병률 조사 결과, 2014년 3.5%에서 2019년 7.9%로 증가추세
- ▶ 국내 연구 결과(2014~2016), 염소 혈청유병률은 8.6~15.7%, 흑염소 22.8~30%, 한우 및 젖소는 0.4~10.5%으로 나타남

고위험 직업군에서 큐열 및 브루셀라증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서야 반드시 작업이나 최근 활동, 건강상태 등을 의료진에게 설명해 주세요.



동물 발생 현황(2013~2019)



브루셀라증 증상

- ▶ 금성증상: 노출 후 평균 2~4주에 발열, 오한,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남
 - ▶ 만성증상: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며, 척추염(8.3%), 대동맥류(2.27%)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
- 우리나라 브루셀라증 역학조사 결과, 발열(64%), 오한(38%), 피로감(31%), 근육통(30%), 발한 및 두통(17.4%), 요통(12.9%) 등으로 많았으며, 그 외 체중 저하, 식욕부진, 관절통 등이 나타남

큐열·브루셀라증 감염 위험요인

- ▶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력이나 감염동물·감염된 축산물 접촉
- * 큐열은 염소와 소, 브루셀라증은 소가 주요 감염원임
- ▶ 살균되지 않은 우유, 익히지 않은 육류 섭취
- ▶ 보호구 미착용 또는 부적절 착용, 위생수칙 미준수
- ▶ 임신부, 임환자, 심장질환자 및 면역억제자 등은 감염시 만성큐열에 대한 위험도 증가